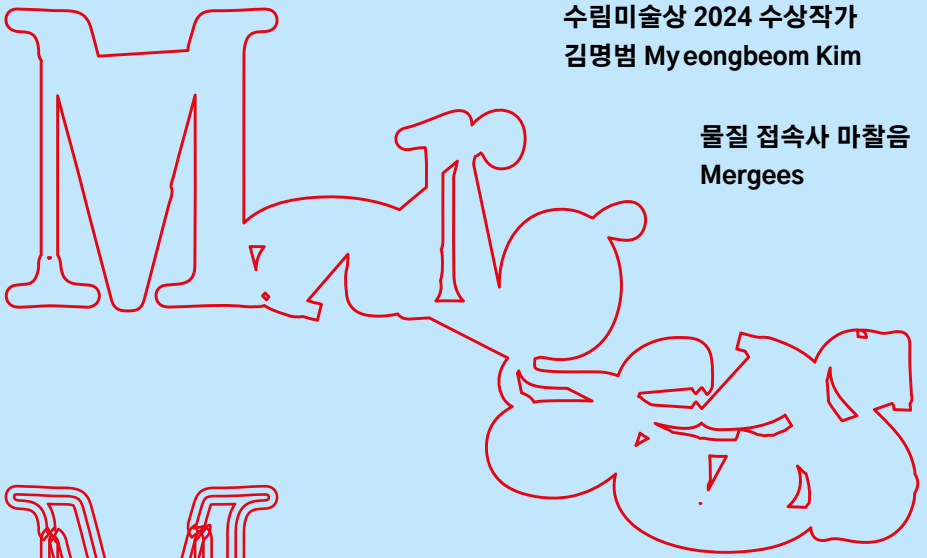


수림미술상 2024 수상작가
김명범 Myeongbeom Kim

물질 접속사 마찰음
Mergees



김희수아트센터

KIM HEE SOO ART CENTER

SRC.F

어떤 사물이 익숙한 맥락에서 벗어나거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제거, 또는 변경되면
새로운 연상 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생긴 시각적 은유가 충분히 강력하다면
가장 흔한 물건조차도 독특한 경험으로 변화될 수 있다.^[1]

[1] 콘스탄틴, M., & 드렉슬러, A. (1966).
《The Object Transformed》「전시 서문」. The Museum of Modern Art

《물질 접속사 마찰음》

수림문화재단 책임 큐레이터
김수정

물질

김명범 작가는 시대적 문화 양식과 감수성을 담지한 여러 사물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 서로 결합하거나 특정 상황을 연출한 형식의 작품을 만든다. 풍선, 돌, 눈송이, 박제 사슴 등 현상과 물질에 속하는 다종의 것이 반복해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개별적으로 분리해 보면 새삼스러운 것이 없지만 작품에 쓰일 때는 한결같이 사소함이나 익숙함이 탈각된 상태다. 이렇게 그의 작업이 비미술 재료(nonart material)인 대상에 가하는 조형적 개입, 무의식을 개방하는 은유적 표현 등, 물질 간의 낯선 관계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은 데페이즈망(dépaysement)^[1]을 환기한다. 그렇지만 그의 주된 관심이 물질 자체, 물질과 그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미술 규범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내적 욕망이나 환상을 표현한 초현실주의와 구별된다. 작가는 그의 작업을 ‘대상이 가진 보편적 가치, 상징성, 관념, 물성, 형상에 주제적으로 개입한 시각적 실천’이라 정리하는데, 이를 통해 물질을 보는 작가의 주관(主觀)이 중시됨을 알 수 있다. 김명범은 마치 특정한 운율이나 감각을 위해 문법을 거스르며 시적 허용을 취하는 시인처럼, 혹은 무대 위 시공간이나 등장(인)물을 이리저리 소환하며 연극적 허용을 행사하는 연출가처럼 물질의 논리를 해제하는 자유를 즐기고 그것을 미술의 방법으로 삼는다.

접속사

결합한 물질은 이어진 듯하지만,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불화하기도 하며 관람자에게 서로 다른 각각의 성질을 좀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한다. 작가는 작품에 서사를 투영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보다는, 시각적으로 명료한, 함축적 결합으로서의 완결에 주력한다. 이는 그의 작업이 종종 시(詩)적이라는 문학적 수사를 받는 이유일 것이다. 확실히 그의 작업에는

한두 줄의 시구(詩句)로 언어화할 수 있을 법한 어떤 인상이, 구와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처럼 맥락에 따라 순접, 역접, 병렬 같은 구조를 만드는 요소가 있다. 이를테면 공기나 바람 같은 매질에 달아 작용하다가 서서히 소진되는 물질을 보여주는 영상처럼 사건의 흐름을 기록한 것도 있고,^[2] 유리 전구 안에 (필라멘트 대신) 꽃힌 생일 초^[3]처럼 극단적으로 명료한 역설일 때도 있다. 밧줄로 변하는 지팡이 사탕, 아니면 관점에 따라 지팡이 사탕으로 변하는 밧줄처럼^[4] 사물이 변신하는 전환의 순간에 문득 멈춰 선 것도 있다. 많은 문장가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살면서 버려온 미감에 따라 인간의 문화를 안고 있는 사물을 다룬다. 그리고 나는 훌륭한 문장가들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세속적인 사물을 탈속화하는 것이 작가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찰음

합병을 위해 물질은 서로 조율해야 한다. 부드럽게 섞이는 것이 아니라 마찰을 일으켜야만 결합이 이뤄진다. 엮은 흔적 없는 매끈한 작업은 고요하지만 청각각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업이 많다. 먼저 나무나 뼈, 뿔을 깎고 연마하여 인공적인 붙임으로 만든 작업이 그렇다. 그런가 하면 작품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도 있다.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풍선의 경우 그것은 종종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갑옷을 입곤 하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서 약간의 공기를 더하거나 뽀족한 것에 닿기만 해도 영락없이 평하고 터져버린다. 전시에 포함된 세 점의 영상은 단단한 눈 뭉치와 불꽃의 상태를 응시케 하는데 소리가 없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불꽃이 작게 지글지글 타는 소리, 눈이 천천히 녹아 흠에 흡수되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은 익숙한 기청감이 있다. 또한 라켓이 되고 만 바이올린-바이올린이 된 라켓^[5]은 (비록 확성을 위한 울림통이 없어 미약할지라도) 찰현악기의 기능을 가졌을 것이다. 전시작 중에는 〈Merry go round〉와 〈Heavy Sound〉처럼 실제 소리를 가진 작품도 있지만 그의 작품을 감각하려 할 때 들려오는 사물 고유의 소리, 기억 속에 있는 소리, 때때로 파열하는, 자연스럽게 불길한 무음의 파장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1] 전치(轉置), 전위법 등을 말한다. 본래는 ‘나라나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초현실주의에서는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세계미술용어사전』 참조

[2] 〈Birthday〉, 2015, 단채널 영상, 2'44''

[3] 〈Birth〉, 2021, 혼합매체, 13×13×6 cm

[4] 〈Candy cane〉, 2014, 혼합매체, 가변크기

[5] 〈Play〉, 2010, 테니스 라켓, 바이올린, 62×23×8 cm

은유로서의 회전문

이번 전시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김명범 작가가 다뤄온 물질의 생태적 변이 — 사물의 변신과 원형에 대한 개입, 흐르는 시간에 대한 역학적인 기록 —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게 준비됐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중간 점검(인터미션)처럼 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주요 전작과 미발표작, 신작을 선별해 선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임으로 이제 1막을 마친 듯한 소회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곳에 도달하기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작업을 하면서도 그에게는 자연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중심을 찾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는, 그가 작가로서의 시작점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 하여 전시장 초입에 있는 은유로서의 회전문은 그가 원점으로 돌아온 이후에 축적한 작업의 아카이브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되돌아 나오는 출구가 되어 관객을 들일 것이다. 전시 《물질 접속사 마찰음》은 조각과 설치, 영상 매체를 오가며 어떤 낯섦과 예민함을 돌아나게 할 수 있는지 살펴 온 김명범 작가의 작업 여정의 중간 어디쯤이다. 전시라는 이름으로 그어둔 테두리가 그 시간을 충분히 탄력있게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

When an object is taken out of its familiar context, or even a single detail is removed or altered, a second set of associations may be brought into play. If the resulting visual metaphor is sufficiently powerful, even the most ubiquitous artifact may be transformed into a unique experience.^[1]

[1] Constantine, M., & Drexler, A. (1966). *The Object Transformed* 「Exhibition introduction」. The Museum of Modern Art

Mergees: Material, Conjunctions, Friction Sound

Sue Kim (Senior Curator,
Soorim Cultural Foundation)

Material

Myeongbeom Kim uses various objects that reflect the cultural styles and sensibilities of the times as materials for his works, combining them or creating specific situations. Balloons, stones, snowflakes, taxidermied deer, and other phenomena and materials frequently recur in his art. Individually, these objects may seem ordinary, but within his works, they consistently shed their triviality and familiarity. Through his sculptural interventions with non-art materials and metaphorical expressions that tap into the subconscious, Kim dramatically reveals unexpected relationships between materials, evoking a sense of *dépaysement*.^[1] However, his primary interest in the material itself and its relationship to the world distinguishes him from surrealism and assemblage, which often sought to challenge artistic norms or express inner desires or fantasies. The artist describes his work as “a visual practice that subjectively intervenes in the universal values, symbolism, ideas, physical properties, and shapes of objects”, highlighting his subjective view of material. Like a poet who defies grammar for the sake of a particular rhyme or sensation, or a stage director who creates a world by manipulating time, space, characters, and objects on stage, Kim embraces the freedom to release the logic of material and uses it as a method of art.

Conjunctions

The combined materials appear both connected and contrasting, allowing the viewer to perceive their distinct qualities more clearly. Rather than projecting a narrative onto his works, Kim focuses on achieving a visually complete, implied union. This approach may explain why his work is often described as poetic. Certain impressions in his work could be conveyed in a line or two of

poetry, like conjunctions linking clauses in a sentence—sequential, oppositional, or parallel, depending on the context. Sometimes, his work documents the flow of events, as in a video of a substance interacting with a medium such as air or wind and gradually dissipating.^[2] Other times, his work conveys a stark paradox, such as a birthday candle in a glass bulb (instead of a filament).^[3] In some cases, he captures moments of transformation, like a candy cane that appears as a rope or a rope that appears as a candy cane, depending on one’s perspective.^[4] Like many writers, he approaches cultural objects through a refined sensibility developed over his life. To me, his goal seems to be to transcend the mundane nature of these everyday items, much as great writers elevate the commonplace.

Friction Sounds

For merging to occur, materials must attune to one another—not by seamlessly blending, but through friction. Smoothly integrated work is silent, but many of his works are highly audible. First, there are the artificial attachments, such as wood, bone, or horn, which are carved and polished, and then the potential dangers they suggest. For example, balloons, often used by the artist, are encased in stainless steel armor, yet we imagine that the slightest breath of air or contact with something sharp might cause them to burst. The three videos in the exhibition invite us to gaze at solid snow and flame; despite the work’s silence, we can almost hear the faint sizzle of a precarious flame or the gradual melting of snow as it soaks into the soil. Similarly, a violin turned into a racket—or a racket turned into a violin^[5]—may still function as a string instrument, though faintly, without a soundboard for amplification. Some of the works in the exhibition, like *Merry go round* and *Heavy Sound*, have actual sounds, yet in experiencing his work, one more strongly senses the inherent sounds of objects—sounds from memory and occasional bursts of natural but ominous silence.

The Revolving Door as Metaphor

The exhibition offers an overview of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material that Kim has been exploring since 2005: the transformation

[1] Refers to transposition, displacement, and similar techniques. Originally, it means ‘leaving one’s home country or familiar place’, but in surrealism, it refers to removing an object from its original location. See the *Dictionary of World Art Terms* for re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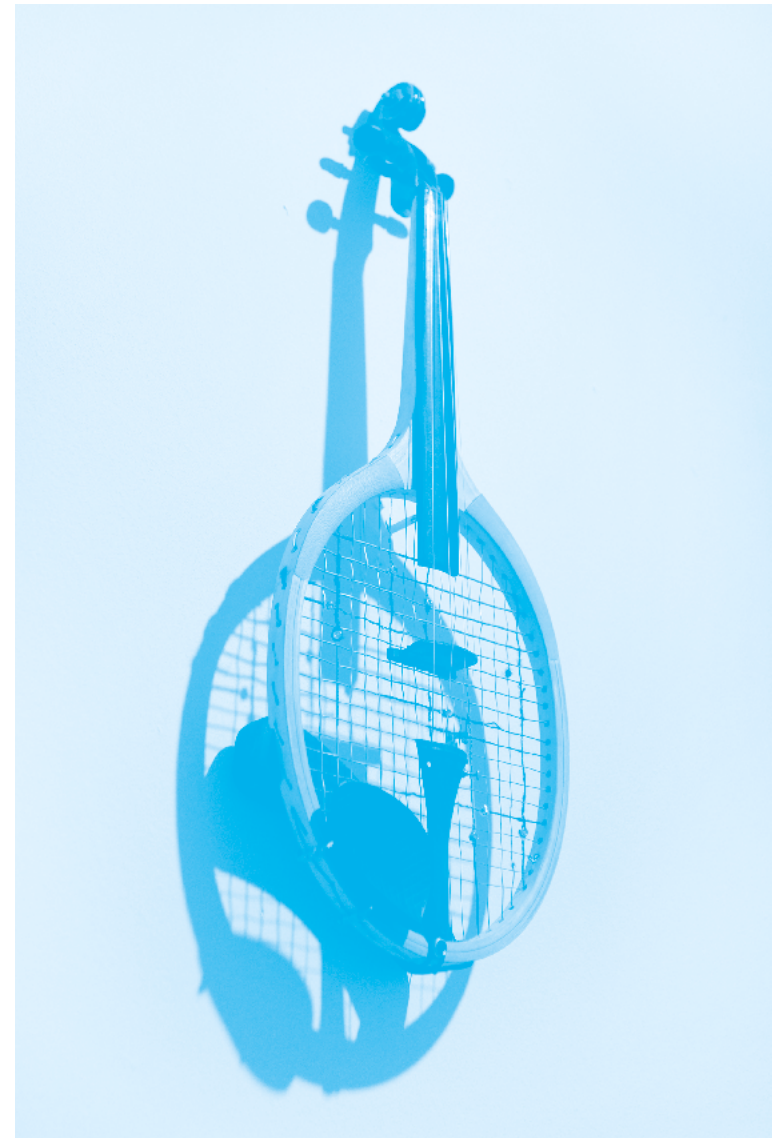
[2] *Birthday*, 2015, single-channel video, 2’44”

[3] *Birth*, 2021, mixed media, 13 × 6 × 6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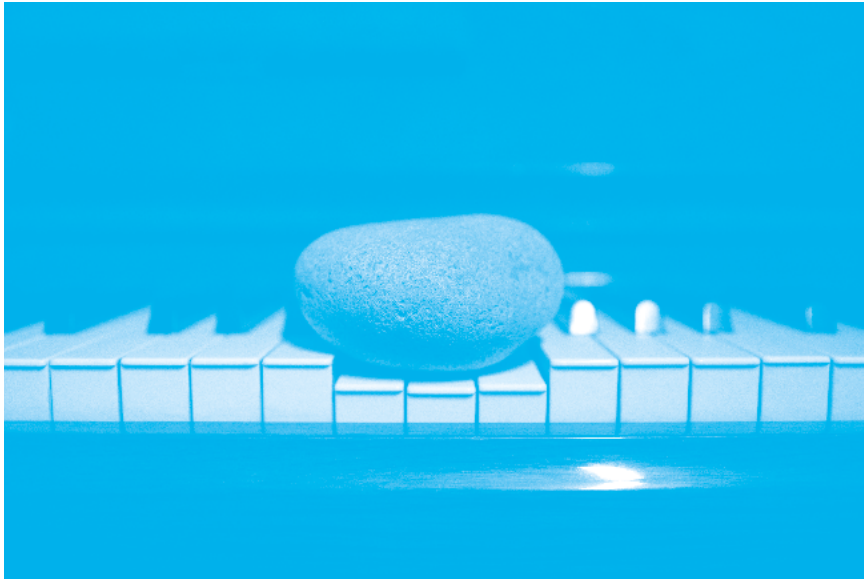
[4] *Candy Cane*, 2014,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5] *Play*, 2010, tennis racket, violin, 62 × 23 × 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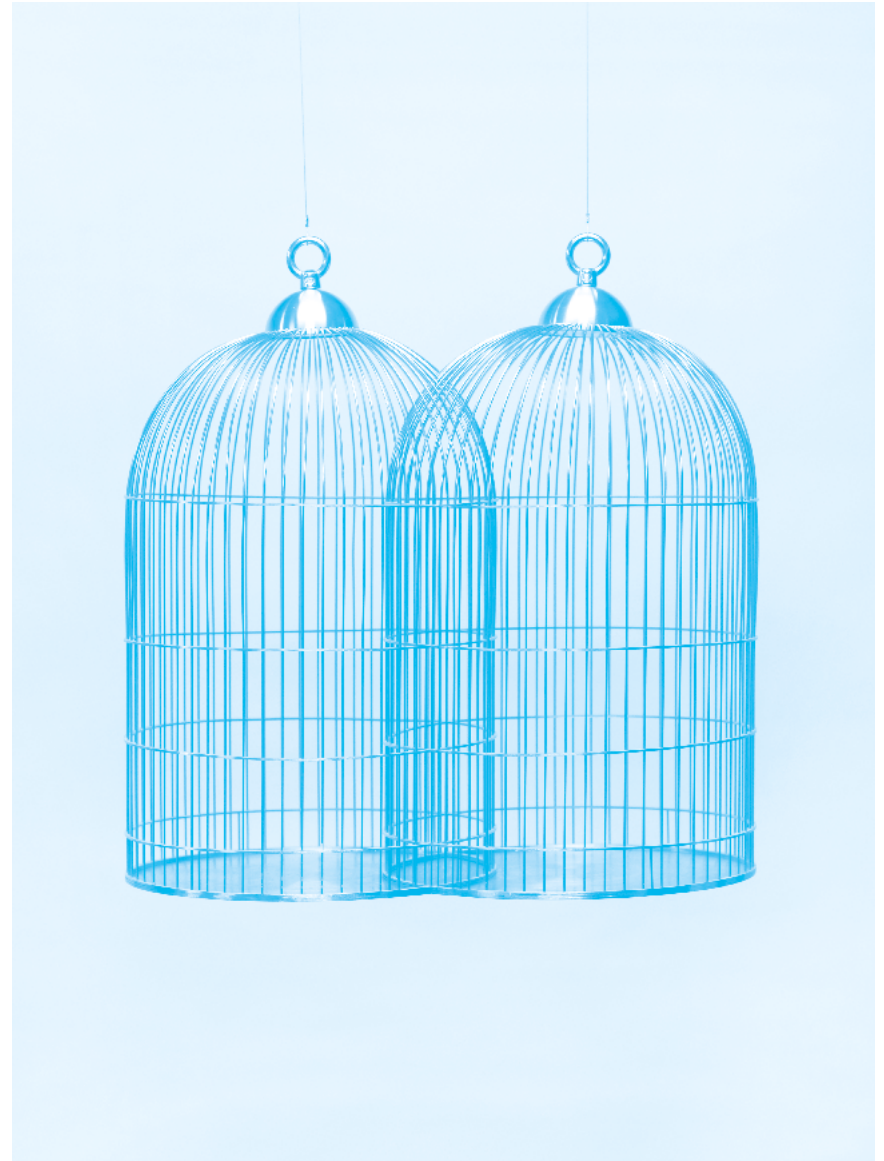
of objects, interventions into archetypes, and dynamic records of the passage of time. Kim refers to this exhibition as an “intermission”, suggesting a meaningful occasion to present his major works, previously unseen pieces, and recent creations, as if marking the end of the first act. Although he has worked tirelessly to reach this point, he recalls a time when he revisited his beginnings as an artist, breaking away from grand narratives of nature to find his own center and return to his origins. Thus, the revolving door at the exhibition’s entrance serves as both an entryway into the archive of his accumulated works and an exit to return to the start. The exhibition *Mergees: Material, Conjunctions, Friction Sound* represents the midpoint of Myeongbeom Kim’s journey through sculpture, installation, and video, where he has examined the strangeness and sensitivity that can be evoked through medium. I hope the boundaries of this exhibition provide enough elasticity to encompass the entirety of this journey.



〈Play〉, 2010, 테니스 라켓, 바이올린, 62 × 23 × 8 cm
Play, 2010, tennis racket, violin, 62 × 23 × 8 cm



〈Heavy Sound〉, 2024, 혼합매체, 사운드, 131 × 150 × 67 cm
Heavy Sound, 2024, mixed media, sound, 131 × 150 × 67 cm



〈Between〉, 2017, 스테인리스 스틸, 57 × 56 × 33 cm
Between, 2017, stainless steel, 57 × 56 × 33 cm

(Merry go round), 2017, 혼합매체, 300 x 240 x 240 cm
Merry go round, 2017, mixed media, 300 x 240 x 240 cm

2024 수림미술상 수상작가
김명범
《물질 접속사 마찰음》
2024.11.22 - 2025.2.28
김희수아트센터
월-토 12:00~18:00
일요일, 공휴일 휴관

운영

경영관리부 | 조정현 부장, 진윤희 대리,
김정은 대리, 최현준 대리,
강수미 주임

예술사업부 | 윤정혜 팀장, 김선옥 책임 큐레이터,
김수정 책임 큐레이터

기획·글

김수정

그래픽 디자인

트라이앵글-스튜디오

번역

이경태

공간조성

PPM

전시 설치

다산아트

영상 장비

올미디어

사운드 레코딩, 믹스 & 마스터

황현우

주최·주관

수림문화재단

2024 SOORIM ART PRIZE

Myeongbeom Kim

Mergees

2024.11.22 - 2025.2.28

KIM HEE SOO ART CENTER

MON-SAT 12:00~18:00

Closed on sundays and holidays

Operations

Management Dept. Junghyun Cho
(General Manager),
Yun Hee Jin
(Assistant Manager),
Jungeun Kim (Assistant
Manager),
Hyun Jun Choi
(Assistant Manager),
Sumi Kang (Associate)

Arts Program Dept. JeongHye Yun (Deputy
General Manager),
Seonok Kim
(Senior Curator),
Sue Kim
(Senior Curator)

Curated by

Sue Kim

Text

Sue Kim

Graphic Design

TRIANGLE-STUDIO

Translation

Kyoungtae Lee

Exhibition

PPM

Construction

Exhibition

Dasan Art

Installation

AV Installation

All Media

Sound Recording,

Hyunwoo Hwang

Mix & Master

Organized by

Soorim Cultural
Foundation

© 2024 수림문화재단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저자와 발행처의 허락없이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4 Soorim Cultural Foundation

This publication is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It may not be reproduced or
redistribut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author and publisher.

수
림
미
술
상
SOORIM
ART
PRIZE
2024

